

ECONOMICS NEWSLETTER 제36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류근관 · 이근 / 편집인 : 이지홍 / 편집조교 : 고중산 / 발행일 : 2017년 2월

이영훈 교수 정년기념 특별기고



이영훈 교수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생활한 지난 32년간 나는 주로 한국에서 시장경제체제가 들어서는 역사적 과정을 탐구하였다. 시장경제체제의 바탕이 되는 사유재산제도가 언제 성립했으며,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등이 주요 연구과제였다. 현실의 한국경제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집필해 온 『한국경제사』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는데,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여러 통계를 뒤지다 보니 듣지 못했던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3~2013년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가 28만에서 36만으로 늘었다. 한국경제는 아직 탈공업화의 단계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 수가 1,223에서 687로 줄었다. 대기업의 종업원 비중은 34%에서 20%로 줄었다. 그 대신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 크게 늘었다. 이들 중소기업은 대개 국제경쟁력을 결여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995년의 41%에서 2013년의 17%로 크게 줄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도 점차 소원해졌다. 중소기업 중에서 다른 기업과 수급관계를 맺는 업체의 비중은 1998년의 66%에서 2011년의 44%로 떨어졌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수출입/국내순생산)는 2011년에 114%라는 최고봉에 달하였다. 수출은 소수 대기업이 그 주력 부대이다. 그런 가운데 수출 대기업은 주요 자재와 부품을 국내의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편리하게 수입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연관표 상에서 수입중간재투입계수가 1995년의 0.1087을 최저점으로 하여 2013년의 0.1599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음에서 알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지만 수출의 부가가치율이 58%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같이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질적 구조는 점점 악화되는 추세를 밟았다. 나는 그 원인을 알고자 여러 문헌을 뒤졌지만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우선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인지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국책 연구소가 생산한 몇 편의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그 원인을 심층으로 분석한 논문은 거의 전무하였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나 경제학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300명 이상에서 그 이하로 줄인 기업들을 찾아가서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자세하게 청취해야 한다. 통계청이 해마다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거두어 집계하는 사업체조사보고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시간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대다수의 연구기관이나 경제학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형식적인 통계를 넘어 산업과 기업의 현장으로까지 파고들지 않는다. 기업이 반겨줄 리도 없거니와 막대한 시간과 고된 발품에 대한 보수와 평가가 낮기 때문이다.

흔히들 경제학을 두고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한다. 수학적 언어로 논리와 실증의 엄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경제학은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에 비해 우월하다. 그 점에서 꽃이라는 수사를 굳이 사양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 대해 회의적이다. 꽃은 꽃이로되 그 열매가 과연 한국경제에 유익한 것인지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학은 그 뿌리가 한국경제의 현실에 깊게 박혀 있지 않은 꽃이다. 그래서 한국경제를 살찌울 열매를 맺기 어렵다. 그 점은 인근 일본의 경제학과 대조적이다. 일본에서는 경제학자의 거의 80%가 국가경제나 지역산업에 관한 자신의 조사와 그에 기초한 실증 분석에 매달린다고 한다. 한국과는 거의 거꾸로다.

한국의 경제학이 현실과 큰 괴리를 지닌 것은 그 역사적 연원이 깊다. 1950년대까지 한국은 전통 농촌사회였다. 그 사회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길에 접어든 것은 창조적인 국가혁신체제가 성공적으로 꾸러졌기 때문이다. 조국근대화의 열의로 가득 찬 정치가와 기업가의 연대가 그 주역이었다. 숙련노동자도 그 연대에 동참하였다. 그 국가혁신체제는 세계 시장을 향하여 대규모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한 세대 만에 낙후된 농촌사회를 중진국 상위권의 대열에 올려놓았다. 그 과정에 한국의 경제학이 기여한 바는 없거나 적었다. 오히려 경제학의 정통이론에 반하는 그 무모함을 냉소함이 일반적 분위기였다.

한국의 경제학이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은 1988년 이후의 이른바 민주화시대에서이다.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 그 이론적 명분이었다. 주류경제학의 훈련을 받은 관료와 관변 경제학자들이 그러한 전환을 주도하였다. 그렇지만 현실과 이론 사이의 엄연한 갭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행동원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로의존성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잘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너무 과격하게 기존의 국가혁신체제를 허물었으며, 그 결과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자초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위기는 관변 엘리트들이 기존의 국가혁신체제를 완전히 해체해 버리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1999년의 대우그룹 해체가 그 상징적 사건이다.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률과 투자율이 감소하고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기업 간, 산업 간의 연관이 악화되는 길을 걸어왔다.

2016년 2월에 경제학부를 졸업한 144명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제조 대기업에 인생을 건 학생은 12명에 불과하다. 고도성장의 시대에 수출시장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빈 앞선 세대의 힘찬 기상이 보이지 않는다. 어찌 젊은이들을 탓하랴. 모두 나 같은 기성세대의 절대 책임이다. 그 가운데 찬연하게 핀 뭉게구름과 같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제학의 책임도 적지 않다. 2월 말이면 정년이다. 그래서 무슨 덕담이나 하라는 부탁인 줄 알지만, 필이 흐르다보다 평생의 버릇대로 저절로 심각해져 버렸다. 예부터 양약은 입에 쓰다고 했으니, 이 글이 약일 리도 없겠지만, 동료 교수와 학생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한다.

경제학부장 인사말씀



류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무역학과/국제경제학과 및 경제학부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경제학부 재학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면을 통해 반 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면서 지난 6개월간의 경제학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경제학부 신입생 학부모 여러분, 이번에 자제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제학부 교수진과 직원 일동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진학하는 귀댁의 자제분이 이 나라의 동량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먼저 그간 서양경제사와 한국경제사를 연구하고 강의해 오신 양동휴 교수와 이영훈 교수께서 2월 말일자로 정년퇴임합니다. 오늘의 경제학부가 있기까지 두 분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는 3월에는 응용미시경제학 분야를 전공하는 러시아 출신의 D. Shapiro 교수가 새로이 부임합니다. 작년 11월에는 우리 학부에서 각 10인에게 수여되는 서울대학교 교육상(류근관 교수)과 연구상(이지홍 교수) 수상교수를 배출하였습니다. 또 최승주 교수와 이근 교수가 2016년 한국경제학회에서 수여하는 청람상과 한국경제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 9월 30일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경제학부 신입생 100여 명 및 교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향상 및 학부 소속감 고취를 위한 경제학부 신입생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제학부 소속 동아리인 법경제학연구회는 2016년 제15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SFERS(SNU Financial and Economic Research Seminar)는 2016년도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세 명 중 이과생 한 명을 제외한 문과생 두 명 모두 신학기 경제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합니다.

우리 학부는 교육 과정의 큰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석사 과정 선발을 중단하고, 석·박사 통합과정 위주로 선발하되 소수의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을 병행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Honors Program을 도입하여 이들에게 이전보다 강화된 경제학 학위 이수 요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는 국내·외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 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장학금 체계는 등록금의 전체 또는 일부만 지원해주고, 그 밖의 생활비 등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 경제학부는 지난 학기에 가정형편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8명에게 등록금과는 별도로 1인당 백만 원씩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46명에게는 월 2회씩 총 14~18회분 급식비를 지급하였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학생 4명에게도 총 천 사

백만원의 연구 장려금 및 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문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 속에 이러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학부 소식 중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생인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66학번)께서 경제학 연구의 국제화와 융합화의 거점이 되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우석경제관” 신축을 위한 기금 100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이에 2018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서울대학교 구내 파워플랜트 동쪽 녹지 사면에 우석경제관 신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석경제관이 들어 설 곳은 봄이면 벚꽃과 철쭉이 만발하는 지역으로 캠퍼스 내 남아 있는 땅 가운데 최상의 부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동문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 및 격려와 서울대학교 본부 측의 적극적인 배려로 향후 백년간 경제학부 발전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학부는 우석경제관 건립과 함께 추가적인 2단계 사업으로 우석경제관 맞은편에 “경제 강의동”을 건립할 계획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석경제관과 함께 경제 강의동이 완성되면 성기학 동문께서 당부하신 사회과학 및 경제학 연구의 융합화와 국제화, 경제학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을 위한 물적 토대가 탄탄하게 구비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터전 위에서 우리 학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류 발전에 기여할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 내고 대한민국의 번영 및 인류에 공헌하는 연구 성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대학원생의 연구 지원(해외 우수 대학 방문 연구 지원 포함), 주니어 교수 연구비 지원, 개도국 유학생 및 학자 지원, 재학생의 다양한 국제화 및 창의적 실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밖의 경제학부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이미 성기학 동문께서 우석경제관 건립비용 전액인 100억 원을 기부해주셨고, 81학번과 82학번 동문들도 졸업 30주년을 맞아 각각 학부 발전기금으로 1억 원과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학부 교수들도 학부 발전기금으로 약 2억 원의 기부금을 약속하였습니다. 동문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기부해주시는 금액은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경제학부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발전에 기여해주시십시오. 경제학부 38명 교수진 일동은 우석경제관 신축과 함께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연구의 융합화 그리고 국제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학부장 류 근 관 드림

발전기금 모금 안내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농협 079-17-000136
- 예 금 주: 서울대 발전기금
- 용도지정: 경제학부

입금하신 뒤 하단의 전화번호로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 경제학부 강내영 행정실장
전화: 02-880-6361, E-mail: kang97@snu.ac.kr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00억 쾌척!



우석경제관 신축기금 협약식에 참석한 성기학 회장(왼쪽)과 성낙인 총장(오른쪽)

2016년 12월 28일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무역학과 66학번)과 서울대 성낙인 총장을 비롯한 영원무역, 서울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경제관 신축기금'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성기학 회장은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00

억을 쾌척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학제간 융합연구와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성기학 회장은 앞서 아시아연구소 건립기금, 글로벌사회봉사단 프로그램 지원금, 영원무역 석학교수기금 등으로 서울대에 30억원을 기부한 바 있어 이번 기부까지 서울대에 총 130억원을 쾌척했다.

새로 건립되는 경제관 명칭 '우석(愚石)'은 성기학 회장의 선친 성재경 선생(1981년 작고)의 호이다. 성기학 회장은 선친에 대해 "고결하고 정직한 어른으로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사업하는 법과 도전정신을 강조한 생전의 가르침을 기억한다. 그 뜻을 기려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석경제관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우석경제관은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관악캠퍼스 파워플랜트 동쪽 녹지 사면에 들어설 예정이다. 우석경제관에는 국제학자들과의 협업, 회의 그리고 세미나를 위한 공간과 혁신경제교육 및 경제연구센터가 들어설 것이다. 이 공간들은 향후 성기학 회장이 추구하는 '글로벌 학제간 융합연구와 교육'을 위한 중추적 장소로 이용될 것이다.

경제학부는 1995년부터 사회과학대학 건물을 사용해왔으나 십여 년 전부터 학부 규모의 계속된 성장과 경제학 수업에 대한 대학 사회내의 수요 증가로 연구·강의 공간 부족 문제를 겪어 왔다. 우석경제관 건립은 경제학부 및 경제연구소의 공간문제 해소 및 국제적/학제적 연구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2016 응용경제 컨퍼런스

2016년 11월 29일 아시아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실험행동사회과학센터, 코이카 아카데미 협력사업의 공동 주관으로 2016 응용경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10개의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Multidimensional Heterogeneity and Nature of Selection in Consumer Credit'와 'Small-Format Chain Stores and the Neighborhood Grocery Market in Korea'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The Effect of SME-Suitable Industry Designation on SMEs' Performance and Entry: Evidence from Ready-Mixed Concrete Industry'와 '한국의 소득획득 기회평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구 프로젝트학습 사업과 효과성 평가', 'The

Value of Friendship in Social Networks: Experimental Evidence with Adolescents', 'Rationality and Preference Aggregation in Group Decision Making under Risk'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The Effect of War on Local Collective Action: Evidence from the Korean War', 'Evaluating Economic Effectiveness of Product Placement in Television: Evidence from Tourist Destination Placement in 'One Night Two Days' of South Korea', 그리고 'Do Single-Sex School Advantages Exist?'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어 응용경제 분야로 연구를 진행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포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컨퍼런스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 경제史 Workshop Mini-Conference

2016년 12월 9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경제학부의 주최로 서울대 경제史 Workshop Mini-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Looking for Modern Implications from the Histor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세 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Human Capital and Health in American History를 주제로 'Interracial Differences in School Attendance in the Postbellum U.S.'와 'The Effect of Pension on Mortality among the Elderly UA Veterans'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Labor Market during the Great Depression을 주제로한 두 번째 세

션에서는 'Slack and Slacker: Job Seekers, Job Vacancies, and Matching Functions in the U.S. Labor Market during the Roaring Twenties and the Great Contraction, 1942-1932'와 'Wage Rigiditie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Plant-level Evidence'가 발표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Frontier Studies in Korean Economic History를 주제로 하여 'The Effect to War on Local Collective Action: Evidence from the Korean War'와 'Fetal Exposure to the 1918 Influenza Pandemic in Colonial Korea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SURE International Workshop

2016년 12월 12일, 19일, 20일 삼일 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경제학부의 주최로 SURE International Workshop이 개최되었다. SURE는 SNU Research in Economics의 약자이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소개와 연구자들 간의 소통을 목표로 진행되었고, 13개의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워크숍 첫날(12일)은 미시경제학을 주제로 'Asymmetric All-Pay Auctions', 'Optimal Contest Design with Incomplete Information: The Role of Negative Prizes', 'Learning Rival's Information in Interdependent Value Auctions'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워크숍 둘째 날(19일) 오전에는 거시경제학을 주제로 'The Optimal Inflation Target under an Inflation-Output Trade-off',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and Crisis Contagion', 'Time-

Varying Information Rigidities and Fluctuations in Professional Forecasters' Disagreement'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응용 미시경제학을 주제로 'Gender Difference i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Utiliz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election, Gender and the Impact of Schooling Type in Dhaka', 'Family Background, Ager-school Tutoring and Student Achievement: Experimental Evidence from Rural China', 'Do Single-Sex School Advantages Exist?'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워크숍 마지막 날(20일)에는 계량경제학을 주제로 'Nonparametric Specification Testing via the Trinity of Tests', 'Characteristic Based Factor Models', 'Optimal Inference with Complete Subsets of Instruments'가 발표되었다.

교수수상 및 동정

이영훈 교수 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15년 간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 왔던 이영훈 교수가 2017년 2월 정년퇴임 한다. 이영훈 교수는 1985년 본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2년에 부임하였다. 이영훈 교수는 경제학부의 유일한 한국경제사 전공자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국경제사와 동양경제사 등을 강의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양동휴 교수 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32년 간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 왔던 양동휴 교수가 2017년 2월 정년퇴임 한다. 양동휴 교수는 198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해에 서울대교로 부임하였다. 양동휴 교수는 서양경제사 전공자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사, 국제경제사, 서양경제사 연구 등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이와 동시에 20세기 경제사, 양동휴의 경제사 산책 등 관련분야 저서 20여 권을 출간하였다.

류근관 교수,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류근관 교수가 2016년 11월 23일에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교육상은 강의 및 학생지도에 남다른 열정과 성과를 보인 교원을 포상하여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학내 구성원에게 교육활동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는 총 10명의 교수가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이지홍 교수,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이지홍 교수가 2016년 11월 23일에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학술연구상은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높인 우수 교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는 총 10명의 교수가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경제학부 교수로서 2008년에 이근 교수가 수상한 이후로 이지홍 교수가 처음이다.

교수 신간 안내

한국경제사1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한국경제사2 근대의 이식과 전통의 탈바꿈

이영훈 지음
일조각(2016년 12월 20일 출간)

한반도에서 문명이 성립한 이래 현재까지 인간의 경제생활이 전개되어 온 역사를 서술한 이영훈 교수의 『한국경제사』 1, 2권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사를 제1시대(기원전 3세기~기원후 7세기), 제2시대(8~14세기), 제3시대(15~19세기), 제4시대(20~21세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시대를 구분하는 지표는 인간의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존재형태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원을 전후한 시

기에 어떤 무리에 속한 가문대 반지하 움집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극히 개성적인 한국인으로까지 진화해 왔는가는 문제이다. 이 책은 고대-중세-근대라는 도식적 틀에서 벗어나 사실의 충실한 인과로서 한국사의 전 흐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반기업 정서: 미국과 일본



양동휴, 이철희, 정진성 지음
해남(2016년 10월 25일 출간)

이 책은 미국과 일본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 다룬 이론서로서 미국과 일본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다.

Fair Queueing



전영섭 지음
Springer(2016년 7월 6일 출간)

이 책은 공정한 대기 규칙(Fair Queueing Rule)을 규범적 측면, 전략적 측면 그리고 비협조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대기 문제(Queueing Problem)는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을 일컫는다. 시장에 여러 경제주체들이 있을 때 이들 모두는 특정 시설을 이용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 시설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수용할 수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대기해야 하며 이때 대기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어떤 순서로 시설을 이용하는가이다.

2017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홍석철, 박규호 외 경제추경연구소 지음
21세기북스(2016년 11월 21일 출간)

다쳐온 경제난국을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 한국경제 전략을 담은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은 대한민국 경제석학 43인이 모여 2016년 경제를 되짚고, 2017년도에 일어날 경제 이슈를 예측하여 거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 책이다. 대표저자인 이근 교수(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를 위시하여 경제추경연구소 소속의 각 분야 경제전문가들이 완성한 이 책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중국경제, 국내·외 경제 트렌드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집필된 종합 경제 트렌드 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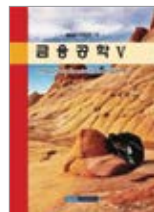
금융공학 IV: Monte Carlo Methods for Finance and Economics



최병선 지음
김구재단(2016년 10월 31일 출간)

2016년 우리는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Alpha Go)가 사람 바둑 기사를 꺾는 것을 목도했다. 이 상황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컴퓨터의 발전은,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네트워크 과학, 구글의 페이지랭크(Page Rank), 알고리즘 트레이딩(algorithmic trading), DSGE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모형화한다. 그런데 기존 수학만을 사용해서 비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금융현상이나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난수발생부터 시작해서 MCMC의 기초, 그리고 확률모형에서 표본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금융공학 V: Introduction to Financial Engineering with R



최병선 지음
김구재단(2016년 12월 26일 출간)

세계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파생상품을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학문이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이다. 금융공학은 경제학, 경영학, 산업공학 등이 연합된 학문으로, 수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공학에서는 수학, 통계학, 그리고 컴퓨터학을 도구로 사용한다. 정글과 같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공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길러내야 한다. 이 목적으로 집필된 이 책은, 금융공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절판된 <금융공학 III: Introduction to Financial Engineering>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Matlab 대신 R을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호모 컨버전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권호정, 김병연 외 17명 지음
아시아(2016년 12월 1일 출간)

이 책은 '호모 컨버전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를 다루며, 과학기술, 경제, 정책, 사회제도 등을 탐구하는 교수 19인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학기술적 특성을 소개한 다음, 우리 사회가 맞이할 변화를 전망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내놓는다.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집단지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호모 컨버전스(HOMO CONVERGENCE)'라는 제목을 택한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가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혁신 · 창조활동과 세계경제질서



박지형, 안덕근, 이석배, 이지홍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6년 8월 30일 출간)

이 책은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 · 창조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아시아와 세계의 혁신 · 창조활동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연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혁신 · 창조활동에 대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새해에는 좀 나아지려나.

-2016년의 광장, DK(Don't Know) 그리고 반지성주의-



신준하 (학부 13학번)

새해다. 아아!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채로 늙어가고 야 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과 비통함을 잠시 한쪽 구석으로 몰아두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본다.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2016년을 기억하면서 광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평소 같았으면 재미있는 음모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할만한 사건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마 직시하고 싶지 않은 사회의 부패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광경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나라를 지탱한다고 자부하던 기업들이 목적과 의의조차 불분명한 재단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모아 바치는 모습, 국가폭력으로 죽음을 맞은 농민과 유가족 앞에서 의료계가 보여준 행태.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청년들의 불안한 믿음을 ‘달그닥 후’ 쉽게 깨버린 한 명의 학생과 그에 동조하고 부역했던 교수들, 주권자를 모독하고 대표할 수 없는 자에게 국가를 떠넘겨버리려 한 우리의 대표까지. 실수나 작은 결함이라는 말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현실에 역사에 남을 숫자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인 2016년이였다.

그것은 하나의 축제였다. 위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민중의 힘으로 이룩한 정치적 승리, 파편화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외치는 목소리가 주는 카타르시스. 미사여구들이 아깝지 않은 역사의 장면을 함께한 경험은 나에게만 특별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2016년의 광장은 수백만 이상의 사람에게 벽찬 고양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실패이기도 했다. 광장으로 모이게 한 그 사건들은 21세기 대한민국과 민주제에 대한 회의와 외상을 남겼다. 어쩌면 역사적인 시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실패를 표상하는 것이리라. 일상에서의 정치적 동시에 정치적 비밀상이 점철된 수개월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귀중한 주말저녁을 포기하고 매주 광장으로 향하는 것은 과연 기뻐해야 할 일인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적이나 바람직함을 읽어내기보다 비극을 읽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거칠게 말하자면, 언젠가는 광장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며 매일매일 광화문에서 촛불만 들고 서있을 수는 없다. 광장을 가득 채울 인파가 몇 번의 주말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평온한 일상, 안락한 주말 저녁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민중이 스스로 개·돼지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변화할 수 있는 사회란 얼마나 안타까운가.

일련의 사태들 속에서 용인하기 힘든 몇몇의 무지 아닌 무지와 반지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에 대해 한 톨의 무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되묻는 대통령, 청문회장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기억나는 바가 없다”고 말하는 부역자와 관료들(아는 것도 모르고자 하면 쉽게 모를 수 있고 잊고 싶을 때 잊고 싶은 만큼 자유로이 잊을 수 있는 능력은 부러움을 살 만하다). 차마 그것들을 순수한 무지로 칭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설령 그들의 말이 당장에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쉽게 ‘몰랐으니까...’ 라는 면죄부를 주고 싶지는 않다. 또 “배후에 중보세력이 있다”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받고 나온다”고 꾸준히 말하는 자들도 있다. 이는 단순히 무지를 넘어서 반지성의 발로이다. 일본의 인문학자 우치다 다쓰루는 <반지성주의를 말하다>에서 역사적 반지성주의의 사례로 ‘매카시즘을 탄생시킨 미국의 조제프 매카시, 19세기 <유대인의 프랑스>의 저자이자 유대인이 프랑스혁명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에두아르 드뤼몽 등을 꼽는다. 그러면서 그는 사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지적 갈망이 반지성으로 전락하는 원인을 “자기를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편한 설명”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애매하고 복잡한 설명보다 적당히 단순하고 분명해보이는 것을 원하는 단일함에서

반지성이 싹튼다. 위에서 언급한 몇몇 발언들을 접할 때, 불편해하고 반지성주의라 질타하며 자연스레 나와 분리해 받아들이는 나를 발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종 일상 속에서, 내 안에서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반지성의 단초들에 섬뜩함을 느끼곤 한다.

모 교수의 시험에서는 TRUE/FALSE 문제를 출제하면서 DK(Don't Know)라는 선택지를 준다고 한다. DK를 적어내면 해당 문제에 대해 0점을 주고, 오답을 적어내는 경우 점수를 깎는 방식이다. 모름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틀리게 아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싶으신 걸까. 이는 단순히 시험에서 무엇을 찍을 것이냐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틀리기와 모르기 사이에서, 뭐 없지만 있어 보이기 위한 도박과 순수히 무지를 인정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한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이란 ‘무지의 지를 가지는 것이라 말했고,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일 뿐, 무식은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사실 불완전하나마 아는 것 또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개인차원에서 순수한 모름보다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한다. 벼락치기를 할 때, 밤새 공부한 후 시험장에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아들 때면 가끔 환멸감 같은 것을 경험한다. 내리 머릿속에 우겨넣었던 내용들을 꺼내 적어야 한다는 막막함.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지식들을 아는 흥내를 내가며 끼워 맞추고 억지로 토해내는 행위가 주는 불쾌함. 쉽게 익숙해지지 않던 그 느낌들이 반지성이라는 키워드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설픈 앎이나마 보고 들은 것을 통해 내가 저지르는 편협함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에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점수로 나의 무지와 반지성의 산물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반드시 나에게 책임을 묻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어설피를 포착하지 못하는 타인들도 있기에 더 반지성적 행태가 일어나기 쉬우며 더 해악적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모 교수의 시험에서는 DK를 적어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DK라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의 심기를 거스르고, 큰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도박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DK를 적어내야 할,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다. 그것은 단순한 모름이라기보다 모름에 대한 앎에 가까울 것이다.

반지성이란 지식을 쌓고 쌓아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 극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검열하고 스스로 규율해야 할 대상에 가깝다. 시민의 힘으로 일차적 성과를 이룬 지금,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반지성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관용을 강요받던 대중이 힘겹게 터뜨린 분노의 동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 발 딛은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고 언제 다시 광장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못 배길 일들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어지러운 상황에서 깊게 생각하는 것은 피곤하고 초인의 등장이라는 서사는 일견 매력적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 통달한 누군가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기만을 기대해선 안 된다. 때로는 그런 간편함에 대한 갈망이 반지성의 양분이 되고, 반지성주의는 방관을 먹고 자란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자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모름을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경제학부 소식지의 일면에는 Warm heart & Cool head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쿨해지기 쉬운 시대, 광장에 모인 우리의 모습에서 ‘냉소하지 않기’의 힘을 보았다. 이제는 냉철한, 그러나 끈질긴 집단지성의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바야흐로 새해다. 작년 우리는 상식과 최소한의 기대가 얼마나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지 경험했다. 더불어 주권자로서, 정치적 주체성, 시민의식의 발현 또한 볼 수 있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강렬한 경험일지언정 무언가는 잊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무엇을 잊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질문은 남아있다. 2016년의 광장이 남긴 질문들에 이제는 실체가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으로 답변할 수 있기를. 새해에는 좀 나아지기를!

개발경제학, 그 시작을 맛보다



이지영 (대학원 14학번)

학부 3학년 때인 2012년 8월, 봉사활동을 위해 약 2주간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그 곳에서의 주된 활동은 학교를 짓는 활동이었지만, 중간 중간 그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가 방문 했던 가정은 정말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탄자니아에서 어떻게 해야 전공을 살리면서 이들을 빈곤에서 탈출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도중에 '개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대학원도 진학하게 되었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에티오피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죽은 원조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선진국들의 원조는 아프리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주로 꼽히는 이유로는 정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원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제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원조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원조 방식은 작은 부분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원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 예를 들어 보건, 음식 섭취 방법, 의식 계몽 등등부터 하나씩 원조를 하거나 그 나라에 맞는 정책을 제언과 시행을 통해서 고쳐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선두에 있는 학문이 개발 경제학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에티오피아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제언할지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제가 1년간 참여했던 프로젝트 홀레타(Project Holeta) 또는 여성역량 강화 프로젝트(Ethiopian Women Empowerment and Development Project; EWEDP)로 이름 붙여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에티오피아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며,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은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며, 저희 사업이 진행되었던 곳은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로부터 45km떨어진 곳에 위치한 홀레타(Holeta)와 이제레(Ejere)지역입니다. 수도지역은 우리나라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웬만한 도시만큼 발전이 된 곳이나, 이곳만 벗어나면 에티오피아의 80%정도가 우리나라의 시골지역 또는 60년대 정도의 모습을 불러일으킬 만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 사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있었던 1년 동안에는 주로 홀레타와 이제레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사전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하였고, 사전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고용할 설문조사사원들을 직접 뽑으면서 개

도국에서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설문조사를 잘 하는지 알아보는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보는 연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년 동안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일인 설문조사사원 모집에서 사전 데이터를 모으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의 선발 과정은 서류전형, 1차 시험(언어능력, 사무에 필요한 능력 등),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training session을 거쳐 성적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할 구역에 집을 약 두달 반 동안 빌리고 짝을 지어 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들이 1차 사전데이터는 모두 모은 상태이고, 2차 방문을 통해 설문조사의 오류가 난 부분을 수정하여 데이터의 질을 높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사업 중간에 생긴 연구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량 강화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향후 에티오피아에서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기 위해 잘 훈련된 설문조사 사원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우 절대적으로 미시적 측면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인데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제기구 혹은 정부측면에서 데이터를 모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도 값진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풀어보겠습니다. 백 오십 여명의 설문조사사원들이 홀레타와 이제레 지역에 배치되기 전 슈퍼바이저급의 직원들과 본인들이 근무할 지역을 직접 방문해보고,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 주민 및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갖는 사전답사 단계가 있었습니다. '사전 답사를 나도 함께 가서 어떻게 설문조사가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거의 매번 따라갔었습니다. 큰 도로는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하였고,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여서 픽업트럭을 빌려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6월 말쯤 우기 시즌이어서 큰 버스 and 픽업트럭 모두가 물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직원들이 내려서 버스를 밀고 웅덩이를 옆길에 있는 흙과 돌로 채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도 오고 큰 버스는 어두워졌을 때 발생한 경우라 겁도 많이 났었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는 젊은 날의 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에 겪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더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있었던 곳은 건기와 우기로만 나누어지고 평균 10-15도를 유지할 정도로 선선한 날씨가 계속 됩니다. 제가 있었을 당시에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그들의 지역에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진행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시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했던 방안 중 하나가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무했던 지역의 절반은 오전에만 송전해주고



↑ 홀레타에 위치한 사무실 전경



↑ 에티오피아 출국 전 사무실 현지직원들과의 마지막 기념촬영



↑ 설문조사하는 모습

설문조사하기 위해 집을 찾아가는 모습 →



↑ 설문조사요원 선발 과정 중 1차 시험

다른 절반은 오후에만 송전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에티오피아가 선선한 날씨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저녁 또는 한밤중이 되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너무나 추워서 저녁에 전기장판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이 있었던 곳이 오전에만 송전을 해주는 시점에 걸렸을 때는 학교 이코노믹스 후드티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양말을 신고 바지도 몇 겹 껴입고 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유독 추위를 많이 타서 이 정책이 시행되었던 약 2주간 잠을 설쳤습니다.

아무래도 진행된 사업이 외국인이 진행하고 연구와 관련되다 보니 진행되는 데에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진행해서 어려웠던 점은 그 지역 중 일부도 이미 외국인들이 퍼주는 선물이나 돈에 오염이 된 상태여서 우리가 진행할 때도 비용을 지불 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사업 진행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미팅을 진행할 때 다른 현지 기관에서 주는 일일 보수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원하기도 하여 상당히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연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바꾸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설문조사요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용주의 입장으로 '그만둘 사람들은 그만 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고용될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강하게 말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말한 뒤에 실제로 채용될 사람 모두가 그만둔다고 말하여 다시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를 보고 나중에는 연구와 분리하여 원조를 하는 것이 사업 진행에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렇게 되면 이전에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과 똑같아 지게 되어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시행 방법을 제언하는 것이 낫다고 다시 생각하는 등 양가감정이 드는 순간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게 되면 더 나은 방법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니 다시 회귀하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의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애를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일을 언제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업무 진행을 하였지만, 관리자의 입장에

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직원들도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이 저희들이 시간약속을 지키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라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외국인 특히 외국여자이다 보니 에티오피아 남성들의 놀림을 받았던 점입니다.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다거나 악수를 하자고 다짜고짜 손을 내밀며 따라오는 남성들,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며 지나가는 남성들 등등 한인 남자 분들과 함께 지나갈 때는 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도 역시 중국인들이 많았고 에티오피아사람들이 그들에게 쌓인 화가 있었는지, 저희를 보며 늘 '차이나, 차이나'라고 중국말 흉내를 내는 에티오피아 인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예상하는 단수나 정전은 빈번하게 있는 일이어서 사실 나중에는 익숙해질 정도였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떠나기 전, 개발경제학자의 가장 선두주자로 불리는 Esther Duflo의 실험 및 개발 경제 논문을 읽을 때 '아프리카 현장에서 어떠한 intervention을 주었고,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실 단위로 임의 배정하여 intervention을 주었다, 또는 사후 때 데이터를 보니 그 효과가 어떻더라.' 라는 문장들을 보면서 쉽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상상도 많이 되지 않아서 '아, 그냥 그랬구나. 그렇게 진행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문에 그 한 문장을 넣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발 경제학을 경험해 보고 싶은 학우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의 직접 연관된 진로를 정할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진로를 준비할지 고민 중에 있지만 만일 에티오피아 프로젝트에 지원할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원했을 만큼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동안 꿈꿔온 개발 경제학의 첫 단계인 현장을 직접적으로 맞볼 수 있었고 제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설문조사시험 준비 과정



↑ 현장 답사 중 자동차가 웅덩이에 빠진 사건



↑ 현장 답사 중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마차를 타고 이동

SNUVALUE

1. 동아리 소개

SNUVALUE는 2008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속 동아리로, 가치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모임입니다. 가치투자란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마련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기업 가치와 기업의 가격 간 괴리에 투자하는 투자법입니다. 저희 SNUVALUE는 각종 경제이론과 배정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밸류체인(전방산업, 후방산업), 기업의 Business Model, 유가, 환율과 같은 거시적 요소 그리고 기업의 향후 순이익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아리 펀드 또는 개인자본을 통해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취합니다.

SNUVALUE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자유의 이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접했던 경제 이론, 회계 지식 등을 실제 기업의 사업을 분석하는 틀로서 응용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 투자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갑니다. 둘째, 기업 및 산업의 분석과 같은 학술적인 활동 외에도 현재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 투자자 혹은 외부의 유명한 투자자를 모신 강연, 홈커밍데이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선·후배 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귀중한 휴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SNUVALUE의 구성원은 비단 경제학부뿐만 아니라 자유전공학부, 수의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등 다양한 전공 소속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 또한 16학번에서부터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년 중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총 4번에 걸쳐 신입회원을 모집하며, 투자에 큰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최소 3학기로 되어있는 의무 활동 규정을 이수한 졸업 회원들은 주로 금융업계로 나아가며 그 중에서도 자산 운용 관련 진로로 많이 나아갑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SNUVALUE의 지도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안동현 교수님입니다. 안동현 교수님께서는 재무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시며, SNUVALUE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분석에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주십니다.

3. 동아리 활동

(1) 기업 분석

SNUVALUE는 정기 세션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기업을 분석합니다. 금리와 같은 거시 지표 및 시장의 성장, 제품의 비탄력성, 해당 시장 내 참여자들의 설비 증설/처분 등을 통해 시장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시장가격, 기업 이익의 향후 현금흐름을 산출해내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의 저평가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아리 세션시간에 동아리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저평가에 대해 확신이 들었다면, 개인 포트폴리오 혹은 동아리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목표가를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목표가를 달성할 시 지분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2) 기업 탐방

기업 분석을 통해 확신을 얻은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 회사의 IR(Investor Relationship)에 연락을 드리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궁금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업체에 종사하고 계신 분과의 만남을 통해 사고의 범위를 크게 확장함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활동



SNUVALUE는 기업 분석, 기업 탐방과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선배투자자 강연, 국내 유명 투자자들과의 만남, 홈커밍데이, MT, 신입생 환영회, 뒷풀이, 시장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투자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SNUVALUE는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즐겁게, 맘 편히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자연스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배우며 함께 실력을 키워나간다는 것이 저희 SNUVALUE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동아리 수상 소식

법경제학연구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대상 수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 팀(8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가했고 LES는 "의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경제 분석, 국내의 관련 판례 등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LES는 본 대회 대상 수상을 통해 2014년부터 3연패 달성과 처음 참여한 2003년 2회 대회이후 총 9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기쁨을 토했다.

SFERS소속 금통통위팀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 금상 수상



2016년 8월 18일에 개최된 2016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서울대학교 금통통위팀(한승현, 김수지, 이예지, 박민섭)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금통통위팀은 경제학부 소속 동아리인 SFERS(SNU Financial and Economic Research Seminar) 소속으로 매년 동아리원들끼리 팀을 구성해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예선대회를 거쳐 선정된 8개 팀이 참가하였고, 금통통위팀은 우리 경제의 실물 및 금융 사이클 상의 국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제안하고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지속시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개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NU Economic Review

1. 동아리 및 지도교수님 소개

• 동아리 소개



SNU Economic Review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속 동아리로서 서울대 유일의 경제 매거진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2009년 동아리 전신인 경제신문 스튜디오에서 시작되어 2011년 9월 동아리로서 발족, 2017년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SNU Economic Review가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지식의 습득, 둘째 이론적 지식과 현실 경제와의 연결 및 조화입니다. SNU Economic Review는 경제 시사들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실 경제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제적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의 원리를 알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매거진 발행을 통해 경제 지식의 나눔을 실천해 서울대학교의 이름에 걸맞은 경제학도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도교수님 소개



SNU Economic Review는 2011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안동현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안동현 교수님께서는 재무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시며 2016년 4월 자

본시장연구원장에 선임되셔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SNU Economic Review를 위하여 매거진을 발행할 때마다 서두에 권두언을 게재해주시고 있으며, 매거진과 관련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것과 같이 SNU Economic Review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2. 동아리 활동

• 아침 브리핑

SNU Economic Review의 회원들은 매 정규 학기 아침에 모여 경제 기사에 대한 브리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브리핑 활동은 SNU Economic Review 활동의 핵심이자 궁극적 목표인 매거진 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SNU Economic Review가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모든 회원들은 아침 브리핑을 위하여 신문 및 주간지 기사(한국, 외국), 책, 기관 및 기업의 경제보고서 등 경제 관련 자료의 내용을 구조화해서 마인드맵을 만들고, 매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 모여 결성된 조원들과 함께 만들어진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자료에서 습득한 지식을 서로에게 브리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시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와 같은 자료로부터 얻은 경제 이론에 대한 나눔을 통해 지식과 이론과의 조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정기 세미나



SNU Economic Review는 매 학기 2번의 정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규 세미나는 총 4팀으로 결성되어 진행되는데, 한 번의 정규 세미나는 2주에 걸쳐 한 번에 2팀씩 2회 진행하게 됩니다. 팀 별로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기적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선택한 후, 심화내용을 공부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 세미나 당일 날 전 활동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나서, 개별 팀에 관한 평가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통해 발표내용과 관련한 피드백할 뿐만 아니라 평가지를 바탕으로 BEST 팀을 선발하여 회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현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매거진 발행



SNU Economic Review는 매 계절학기마다 매거진을 집필하고 정규학기 초에 발행, 배부하여 서울대 학우들에게 경제 지식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매거진 발행을 위하여 계절학기 동안 10번의 정기 오프라인 회의와 다수의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거진 기사의 경우 개인당 1기사 원칙하에 아침브리핑과 정기 세미나를 통해 습득한 경제 시사 및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SNU Economic Review 경제 매거진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기준 제9호 발간을 완료했으며 현재 제10호 매거진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매거진은 크게 지도교수님의 권두언부터 커버스토리와 특집, 이슈와 관련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어 있으며 시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사별 주제를 선정하고, 지식의 나눔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독성과 친절함을 목표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친목활동(신입환영 MT, 매거진 MT, 홈커밍데이)



SNU Economic Review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신입회원 리크루팅이 완료된 후, 향후 아침 브리핑과 같은 활동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기수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OT와 함께 신입환영M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거진 발행 전, 매거진 MT를 통해 매거진 배부 계획 수립과 더불어 활동기수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매년 2월, 홈커밍데이를 실시하여 활동기수들과 OB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SNU Economic Review만의 인적 네트워크가 활동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신입회원 모집



SNU Economic Review는 일 년에 2번, 매 정규학기 초에 리크루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를 즐겨 읽고 경제 매거진을 발행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 절차는 지원서 접수, 인터뷰, 최종선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규학기 2번, 계절학기 2번 연속 활동 가능한 서울대학교 재학생 혹은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SNU Economic Review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SNU Economic Review 리크루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economic.review.snu@gmail.com으로 메일을 통하여 연락 주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snueconomicreview에 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0면에서 이어집니다.)

BK21플러스사업단 장단기 연구지원

장기연구지원

김성희 (박사과정)

독일 GESIS Eurolab 방문연구 (Visiting Researcher)

단기연구지원(논문발표지원)

이웅익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Asian-Pacific ESA Conference"에서 논문 "Strategic Interactions on Interactions: An Experimental Analysis" 발표

최봉준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Asian-Pacific ESA Conference"에서 논문 "Irreversibility and Monitoring in Dynamic Games: Experimental Evidence" 발표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13년9월1일~2015년8월31일)의 중간평가 결과 사회과학분야(경제/경영, 전국단위) 최우수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다.

BK21플러스사업단은 2016년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8회
- ▶ BK21플러스/IER Public Seminar 6회
-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6회
- ▶ BK21플러스 공동주관 세미나 2회
- ▶ 경제사 워크숍 12회
-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7회
- ▶ 실험사회과학모임 4회
- ▶ 장·단기해외연수지원 3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Christian Krestel (Aalto University)

Learning through Search

Yoshi Saijo (Kyushu University)

Negotiating with the Future: Incorporating Imaginary Future Generations into Negotiations

David Miller (University of Michigan)

The Contractual Equilibrium Approach to Equilibrium in Relational Contracts

정한준 (Academia Sinica)

Structural Manipulation in a Multi-period Sender-Receiver Game

Hitoshi Matsushima (University of Tokyo)

Mechanism Design in Hidden Action and Hidden Information: Richness and Pure Groves

오동환 (Federal Reserve Board)

Stochastic Intensity Margin Modeling of Credit Default Swap Portfolios

Rami Tabri (University of Sydney)

Empirical Likelihood for Robust Poverty Comparisons

장유순 (Indiana University)

Endogenous Monetary-Fiscal Regim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BK21플러스/IER Public Lecture Series

조장욱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The Rise and Fall of Miracle

Samuel Bowles and Wendy Carlin (Santa fe Institute, University College London)

A New Paradigm for Teaching Introductory Economic: The CORE Project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최재필 (Michigan State University, HIAS)

A Leverage Theory of Tying in Two Sided Markets

이근, 한준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Heterogeneous Technology and Specialization at Different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 Schumpeterian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황윤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Non parametric Inference on Stochastic Dominance and Related Concepts.

BK21플러스사업단 Brown Bag lunch 세미나

송상윤 (서울대 경제학부)

The Effects of SME Graduation Criteria Revision on Firm Growth: Evidence from Korea

한준희 (서울대 경제학부)

Solving Macro Trilemma Differently between Emerging and Developed Countries : Autonomy in Exchange Rate VS. Free Capital Mobility

이영환 (서울대 경제학부)

Limited Validity of Rational Asset Pricing Models: Evidence from Racetrack Betting Market

노재연 (서울대 경제학부)

The Effect of Pre-existing FTAs with Asymmetric Third Countries on the Formation of a New FTA

강지혜 (서울대 경제학부)

Government Spending News Shock

유근식 (서울대 경제학부)

Divorced Children and Psychological Health of Parents

BK21플러스사업단 공동주관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본배정의센터 국제워크숍]

Graduate Summer Workshop on Game Theory

특별강연 [SNU Econ Lecture Series]

Christopher Mark Davis (University of Oxford)
Lessons from Economic Transition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for Reunification of Korea

경제사 워크숍

정안기 (서울대 경제연구소)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와 특수회사 연구

김영일 (서강대학교)

Mental Health Cost of Terrorism: Study of the Charlie Hebdo Attack in Paris

임채성 (릿쿄대)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소주의 산업화와 대중화: 기술과 시장

최수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Health Perception Impact on Happiness : In Gender Relative Perspective

안소영 (연세대학교)

Trade Agreements and Stock Market Co-movements

윤양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918 Influenza in Colonial Korea and its Long-term effects of in Utero Exposure

고 선 (중앙대학교)

Interracial Differences in School Attendance in the Postbellum U.S.

김도형 (KDI)

The Effect on Pension on Mortality among the Elderly UA Veterans

이 웅 (KIEP)

Slack and Slacker: Job Seekers, Job Vacancies, and Matching Functions in the U.S. Labor Market during the Roaring Twenties and the Great Contraction, 1924-1932

이창근 (KDI)

Wage Rigiditie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Plant-level Evidence

양현주 (KDI)

The Effect of War on Local Collective Action: Evidence from the Korean War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Fetal Exposure to the 1918 Influenza Pandemic in Colonial Korea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안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o Financial Incentives Trump Clinical Guidance? Hip Replacement in England and Scotland(2015, Irene Papanicolas et al, JHE)

김현익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한국의 세대간 소득탄력성 추정

도민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election on Observed and Unobserved Variables: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atholic Schools(2005, Atltongji)

문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College Quality and Wages in the US(GER, 2005)

최윤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eam Work and Moral Hazard

허은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omestic Violence and Divorce Law(Pablo, JLE, 2016)

유근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oes Air Quality Matter? Evidence from the Housing Market (JPE, 2005, Kenneth T. Chay et al)

실험사회과학모임

고원식, 임현경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How do Voters Respond to Information? Evidence from a Randomized Campaign, Identifying Higher Order Rationality.

김선탐 (National Taiwan University), 이웅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An Experimental Study on Proposal Power in Legislative Bargaining, Dynamic Contribution Games: Theory and Experimental Evidence

정세은, 박민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Gender Wage Gaps and Risky vs. Secure Employment : An Experimental Analysis, Rationality and Preference Aggregation in Group Decision Making under Risk

정원희, 이은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s on Children: New Evidence from the Moving to Opportunity Experiment (Chetty et al(2016)), Attention Discrimination: Theory and Field Experiments with Monitoring Information Acquisition (Barros et al.(2016))

장 학 금

장학금 수여

2016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814명 중 161명(전액 장학금 34명), 대학원생 187명 중 42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향상 장학금을 통해 4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333명, 대학원생 1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2016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6년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22명의 학부생이 참석하여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2016년 제15회 김태성 기념장학생 선정

2015년 12월 13일 경제학부 소회의실에서 김태성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사 과정생(송상윤, 최정훈, 이영재) 3명을 김태성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경제학부는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우수한 학위논문 발표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김태성 논문 장학생을 1998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0회 후기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제70회 후기학위수여식이 2016년 8월 29일(월)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8명, 석사 18명, 학사 33명(최우등 11명, 우등 15명)을 배출하였다.

2017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7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22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8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석사·박사통합과정은 석사와 동일한 방식을 통해 최종 2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대학원 모집인원 변경계획

경제학부 대학원은 2018년도 전기부터 <석사·박사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에 대학원 정원 조정 신청을 예정하고 있으며, 승인이 되는 경우

2018학년부터 새로운 모집인원으로 전형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 경제학부 대학원은 한 해 석사 63명, 석박통합 2명, 박사 17명을 선발하였으나 변경안대로 시행할 경우 한 해 석박통합 35명, 박사과정 15명을 선발한다.

201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6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 '경제원론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국제경제론',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계량경제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經友의 밤'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학생자치 동아리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주최로 2016년 11월 24일 '經友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경제학부 소속의 교수, 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사제 간, 선·후배 간,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매년 2학기(11월 중)에 경제학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6학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 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주병기	Advanced Microeconomics
Jihong Lee	Game Theory and Its Application, Market Design Theory and Application
Yves Gueron	Microeconomics, Studies in Microeconomics, Reading and Research

2017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전기 모집

경제학부는 2017년도 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2명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총 13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1명의 몽골 학생과 1명의 중국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6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BESAP 참가자로 3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 중 1명을 2016년 2학기에, 나머지 2명을 2017년 1학기에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협약을 맺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봄 학기 정규과정에 방문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부 행사

경제학부 신입생 체육대회 개최



2016년 9월 30일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학생 및 교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학부 신입생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신입생들의 친목향상 및 학부 소속감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글로벌 하우스에서 교수-학생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82학번 홈커밍 행사 개최 및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 쾌척



2016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명예교수, 교원, 및 동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2학번 홈커밍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날 82학번 동기회는 서울대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을 쾌척하였다.

북경대 경제학부, 서울대 경제학부 방문



2016년 12월 12일 북경대 경제학부에서 교수 5명, 학부생 16명이 서울대 경제학부를 방문하였다. 우리 학부에서는 이근 교수, 류근관 교수, 김소영 교수, 조성진 교수가 방문단을 맞이하였고, 이근 교수가 Recent Economic Issues in Korea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후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관계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이번 행사는 두 학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동문문화재단 2,000만원(학생학술활동)
- 박성훈(CJ부사장) 1,000만원(장학)
- ㈜원원무역(성기학 회장) 1억 2천만원(학술 및 기타)
- 이필성(경제학부 겸임교수) 1,000만원(장학)
- ㈜와이엠에스에이(성기학 회장) 100억원(건물 신축)
- 82학번 동기회 1억 5천만원(위임)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6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제37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10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의 특전

-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 2. 동창회 조직:**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① 모집인원:** 40명 내외
- ② 입학자격:** 1) 대기업의 임원 2) 중소기업의 대표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간부
5)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④ 모집횟수:** 연2회(봄학기 모집: 1~2월, 가을학기 모집: 7~8월)
-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 ⑥ 모집안내** - 전화: (02)880-5432 - 팩스: (02)888-4454
- 이메일: asp@snu.ac.kr - 홈페이지: http://ier.snu.ac.kr
- 주소: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16동 523호)

ASP 32기 회원명단

1. 강창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2. 권오복 ㈜진영아이앤씨 대표이사
3. 권오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4. 김두영 KOTRA 전략마케팅본부장
5. 김승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
6. 김용준 신용보증기금 강남지점장
7. 김철수 KT 부사장(Customer부문장)
8. 김현란 소사벌종합건설(주) 대표이사
9. 김희천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본부장
10.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11. 노형남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 교수
12. 류동운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1부장
13. 마재열 한국기업평가 상무(평가정책본부)
14. 박 번 삼성증권 상무(Wholesale본부장)
15. 박종철 한화투자증권 상무(준법감시인)
16.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17. 서정학 IBK기업은행 강북지역본부장
18. 손삼락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19. 송원식 엠플러스 에프앤씨(주) 대표이사
20. 양광우 신한은행 강동본부장
21. 오태균 KEB하나은행 전무
22. 유상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대체실장
23. 이규윤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채권본부장)
24.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25. 이익원 기획재정부 국장
26. 이정호 비씨카드 상무(영업본부장)
27. 이후명 기획재정부 본부국장
28. 장혁주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회장
29. 조일래 삼성생명 상무(커뮤니케이션팀장)
30. 최장순 리딩투자증권 부사장(S&T부문장)
31. 탁세완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아라뱃길관리처)



(ASP 32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